

| 사회적 대화 현장 |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베트남과 연대 통해 글로벌 상생을 꿈꾸다

## 임지순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국장 인터뷰

강은영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 이하 우분투재단)이 지난 6월 12일 공식출범했다. 우분투재단은 국제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베트남 푸옌 지역을 찾아 주택건립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 이하 사무금융노조)과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 우분투재단은 지난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직접 베트남 푸옌 지역을 찾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립 지원했다. 직접 베트남 지역을 방문해 푸옌 지역을 둘러본 임지순 우분투재단 사무국장을 만나 자세한 후기를 들어봤다.



## ■ 베트남 푸옌 지역은 어떤 곳인가?

“푸옌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200km나 떨어진 남중부 지방에 있는 성 단위 행정구역이다. 하노이에서 푸옌으로 이동하는 데 베트남 국내 비행기로 1시간이 넘게 이동할 정도로 거리가 있는 곳이다. 푸옌의 인구는 약 90만 명 정도이며 베트남 내에서도 낙후된 5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양민들이 학살된 곳으로 한국인 증오비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 ■ 베트남에서의 4박 5일 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첫 번째 날에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도착했다. 베트남평화개발재단을 찾아 만찬과 간담회를 가졌다.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푸옌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푸옌우호친선단체연합회를 공식 방문해 주택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해 MOU를 체결하고, 주택 지원을 받게 될 수혜자들을 직접 만났다. 다음 날에는 주택이 지어질 곳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마지막에는 수도 하노이에 다시 돌아와 베트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향후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 ■ 주택건립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

“사무금융노조에서 지원하는 주택 3채와 우분투재단에서 지원하는 주택 7채, 총 10채의 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 채당 3,500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무금융노조와 우분투재단이 총 3만5천 달러의 기금을 출연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국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사업비가 온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협상과정에서도 사업비가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러 번 설명했다. 베트남에서도 소수 몇 명이 수혜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푸옌우호친선단체연합회와 베트남 공공서비스노동조합, 푸옌 지역 정부 관료 등 각 기관에서 10명이 모여 위원회를 구성했다. 푸옌 지역에서 주택 지원을 받을 신청자를 모집했고, 위원회에서는 신청자들 중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사연이 어려운 사람 10명을 선정했다고 들었다.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사업비가 다른 곳을 새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를 인지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모습이 베트남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베트남의 가옥 구조는 한국과 달리 세심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주택을 짓는 데 한 달 반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또한, 베트남은 11월 중순 이후부터 우기가 시작된다. 한국은 한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지만 베트남은 이 시기부터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아주 많이 내려 주택을 짓기 어렵다.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10채의 주택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 ■ 직접 방문한 푸엔 지역은 어떤 곳이었나?

“새롭게 집을 짓게 될 10곳 중 두 곳만을 방문했다. 92살인 할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곳과 85살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국제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 복잡했다.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막상 두 눈으로 푸엔 지역을 직접 보니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한 분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베트남의 농촌 지역에서 사는 어르신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푸엔 지역은 더더욱 심했다. 슬레이트로 겨우 벽과 지붕을 가린 정도였다. 주택이라고 말하기도 무안한 상태였다. 크기

도 매우 협소했다. 92살인 할머니 집의 경우는 할머니 방은 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고 커튼으로만 가린 정도였다. 평상처럼 된 곳은 침대라고 했다. 다른 한편에는 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맣게 마련돼 있었다. 그곳의 집은 잠을 자거나 밥만 먹을 수 있는 공간이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거나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했다. 새롭게 집을 만든다고 해도 슬레이트가 아닌 단단한 시멘트로 벽과 천장을 만드는 구조이며, 집이 완성되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내부 공간을 설정하게 된다. 공동화장실이나 수리 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 ■ 우분투재단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우선, 베트남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두 번 정도 현장방문을 더 갈 계획이다. 주택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수혜자들이 입주하는 모습까지 확인해보고 싶다. 올해 우분투재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들의 대출 금리를 우대하거나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 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시작하지만 전국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도 고민하고 있다. 청년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멘토링 사업에 협력해 사무금융노조와 우분투재단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들을 구성해 매칭시켜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 우분투재단이 그리고 있는 꿈이 있다면?

“사회의 3가지 주요 핵심 영역이 있다. 정부와 기업, 민간의 공공영역이다. 정부와 시장 주도로 사회가 형성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는 정부실패와 시장 실패를 경험했다. 안정적이고 선 순환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면 민간 공공영역도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은 구분돼 별개로 발전해 왔다. 우분투재단은 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연합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